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8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면

매력 있는 자원 충분… 그런데 숙박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유에스 여행사 황두연 대표이사 등 관계자 9명이 담양 소쇄원을 둘러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충장로 밤풍경·야시장·풍물시장 상품성 갖춰

"유적지 많은데 외국인 전문 해설사 없어서야"

"소쇄원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인공적인 건축을 조화시킨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원림(園林)입니다. 양산보 선생이 스승 조광조가 유배를 당하자 출세의 뜻을 버리고 이곳에서 거거하는 등 조선선비의 절의가 배어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지난 16일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소쇄원.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와 '관광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주)유에스 여행사 황두연 대표이사 등 관계자 9명이 남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유에스 여행사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여행객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다.

이날 진지한 표정으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던 유에스 여행사 황두연 대표 이사 등은 현지 안내인에게 "외국인 전문 문화해설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불쑥 던졌다.

'문화재를 외국인들에게 팔려면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시킬 외국어 전문해설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광주·전남 관광 현실 개선을 위한 과제이기도 했다.

이 회사 임소연 과장은 "문화와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어 안내판은 물론 해외관광객이 불편하지 않을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국인 관광 유치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국내외 홍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에스 여행사 관계자들은 광주의 도심인 충장로와 광주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장로와 금남로 등의 야간 풍경과 활력 넘치는 인파는 서울 명동 등 전국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므로 외국인들의 보고 즐길 수 있는 야시장, 풍물시장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경우 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이사는 "충장로의 밤 풍경이 독특한 데다 금남로 지하상가도 물건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 외국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충장로와 금남로 지하상가를 어떻게 관광코스로 개발하느냐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인 광주 천변에 노천카페를 개설하고 상설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광주·전남의 관광 여건에 대한 뼈아픈 충고도 이어졌다. 이날 자신들이 묵고 있는 프라도 호텔을 비롯한 신양파크, 무등파크 호텔 등 광주시내 주요 숙박업소를 둘러본 유에스 여행사 실무자들은 광주를 해외에 팔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관건인 숙식 환경을 한 차원 높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텔 객실의 경우 비교적 정리 정돈이 잘 돼 있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숙박 비용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20여년 동안 가이드 업무에 종사했다는 한기진씨는 "광주의 숙박비용이 서울 등 숙박 환경이 좋은 곳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시설에 비해 가격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호텔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뷔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할 사안으로 꼽혔다.

외국인들이 광주 도심투어는 물론 전남 답사에 나설 경우 찾게 되는 음식점 환경도 외국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웅작 유에스 여행사 부사장은 "유명 관광지 음식점들이 식사를 룸에서 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들이 불편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다"며 "온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 등을 갖출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문화유산을 둘러보기 위해 관광에 나서기도 하지만, 독특한 위락·여가시설 때문에 해외 여행지를 찾기도 한다"며 "이같은 외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팸투어 참가 황두연 유에스 여행사 대표

"광주비엔날레·김치축제 등 연계 광주 대표할 관광상품 개발해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합니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최근 광주시와 '관광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 (주)유에스 여행사 황두연(64) 대표이사는 "관광산업도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76년 미국으로 이민, 여행사를 설립한 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상품을 개발, 미국인들에게 판매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여행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3년 동안 수입없이 투자만을 했던 때도 있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번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장기적인 관광전략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30여년 동안 관광업에 종사해온 그는 "광주의 경우 보여줄 수 있는 관광상품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약점이다"며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등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경우 광주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지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광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것과 관련, 그는 "서울에서 장기 공연되고 있는 난타의 경우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광주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문화상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에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특급 호텔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는 기존 호텔들이 영업방식을 바꾸는 것이다"고 충고했다.

호텔을 찾는 관광객이 없다보니 영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숙박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격과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관광객들이 숙박업소를 찾지않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광주시, 외국인 200명 유치 200만원 지급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기존 1인당 1~3박에 1~2만원을 지원하던 숙박비에 더해 관광상품 개발비와 차량 임차비 등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1박 이상 광주에 체류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2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200만원의 상품 개발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는 10명 이상의 경우 15만원, 15명 이상은 20만원의 차량 임차비를 지원키로 했다.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1박 이상 시내 관광호텔에 머무르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15명 이상은 15만원, 25명 이상은 20만원의 차량 임차비를 제공한다.

이 밖에 5명 이상의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체로 광주지역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체류할 경우 매주 수요일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리는 국악공연의 관람 좌석을 우선 배정해 주기로 했다.

광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 수는 2006년 1천509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반면 2007년에는 1천554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3박까지 1인당 1만~2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